가상화폐, 거래금지서 과세강화에 무게

시장 강력 반발에 정부대책 호흡 고르기
거래 통제-실명확인-추가조치 수순 예상
전문가·오피니언 리더들 찬반 여론 충돌

이슈

가상화폐 규제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커지고 투기 형태로 과열양상을 띠면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막 걸음마 단계인 블록체인 신기술의 성장판을 아예 닫아버린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일단 14일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난 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거래소 폐쇄와 같은 초강경 조치에서 실명전환 후 과세강화 쪽으로 조심스럽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단 이달 말부터 시중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 입금을 제한키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법무부 안처럼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 확대를 최대한 막고 실명확인 작업을 공고히 한 후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스탠스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말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충돌이다. 유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먹는 과정"이라며 "투자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재승 교수는 SNS를 통해 "유 선생님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게 악담을 퍼붓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현대인들을 부의 신세계로 이끌 희망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한 지는 결국 가상화폐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가상화폐 규제 논란 찬반 여론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 11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된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 모습. 뉴시스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8일~12일

코스피지수	2496.42	▼	-1.10
코스닥지수	873.05	▲	+45.02
日 닛케이 지수	2만3653.82	▼	-60.71
中 상하이 종합	3428.94	▲	+37.1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7	▲	+0.07
환율 (원 · 달러)	1065.0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541.39	▲	+484.51

지수는 12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신격호 회장, 롯데월드타워로 거처 옮겨

신격호(95·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번 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기면서 40년 소공동 시대를 마감한다. 롯데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16일이나 17일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서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거처를 옮긴다. 신 총괄회장은 1978년 3월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 26층에 롯데그룹 운영본부를 발족하며 '소공동 시대'를 열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거주했다. 그동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둘러싸고 법정분쟁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로 롯데월드타워가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새 거처인 롯데월드타워 49층은 고급 레지던스형 공간으로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이 머물 공간도 같은 층에 들어선다.

비즈 TALK TALK

● **"가상화폐 규제, 관료제의 영향"**(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네이버 창립멤버 출신인 김 대표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비판하며)

● **"'광주형 일자리' 조성 검토한 적 없다"**(현대기아차, 광주와 전남 함평에 조성중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조성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며)

● **"유리천장 깨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8 여성CEO 신년하례식에서 공직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여성 승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스마트 캐리어, 리튬배터리 분리 못하면 항공운송 제한

대한항공 15일부터 적용, 분리해 휴대해야

ICT를 도입한 신개념 여행용품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캐리어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예정이라면 항공사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 일명 스마트 캐리어에 대해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위탁수하물이나 기내 수하물 반입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는 모델도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만 위탁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다.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해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내부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하고 GPS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이동, 자동 잠금, 스마트 기기 충전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여행용 캐리어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코와로봇의 R1 모델 등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최근 여행 얼리어댑터들에게 주목받고 있다.(2017년 10월26일 "어, 캐리어가 주인 찾아 알아서 따라오네" 기사 참조)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스마트 수하물가방이 내부 리튬배터리의 과열이나 발화 위험성을 갖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휴대폰 위약금 부담 없이 기변 가능해졌다

LGU+, 재약정시 할인반환금 유예제 도입

스마트폰이 부서지거나 분실했을 때 새 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하려면 기기 할부금과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의 부담이 있어 쉽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14개월 뒤 기기변경을 하면 지금까지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론 재약정을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할인반환금 유예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도 재약정을 하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론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할 때는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재약정 기간 도중 해지하면 기존 유예를 받았던 할인반환금에 재약정의 할인반환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24개월 선택약정 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하면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하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만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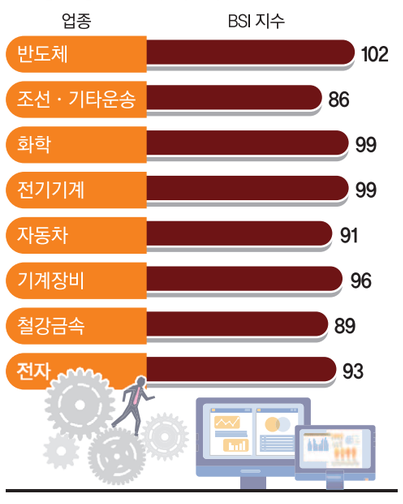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데이터 경제

제조업 1분기 경기전망, 유일하게 반도체만 방긋

산업연구원이 국내 5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시황 전망이 92, 매출 전망은 95로 각각 집계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수와 수출 전망은 각각 94와 96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설비투자와 고용 전망은 둘 다 98로 전 분기와 비슷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산업연구원



애경그룹 8월부터 '홍대시대' 개막

홍대입구 역사에 통합사옥 짓고 6개사 이전

애경그룹이 8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역사에 그룹 통합사옥을 짓고 이전한다.

통합사옥은 연면적 약 5만3909m²로 판매시설과 업무 시설 등이 집약된 복합시설동과 공공업무시설동으로 구성했다.

AK홀딩스, 애경산업, AK켐텍, AM플러스 자산개발, AK아이에스, 마포애경타운 등 그룹 6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1~5층까지는 AK플라자 판매시설이 입주하고, 7~16층까지는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호텔이 들어선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은 "2018년은 애경그룹이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며 "훗날 홍대 시대 개막이 애경그룹의 새로운 도약 지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애경그룹 통합사옥 조감도. 사진제공|애경그룹

삼성전자 '더월' CES서 최다 수상

삼성전자가 가전전시회 CES에서 상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CES를 주관하는 CTA로부터 지난해 11월 36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또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CES 전시제품 중 선정해 수여하는 상 80개까지 총 116개의 CES 어워드를 수상했다. 특히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첫 모듈러 TV '더월'(사진)은 CES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BGR의 'Best of CES' 상 등 41개를 받아 업계 단일 제품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LG전자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LG전자가 28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사진)에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하는 LG전자는 전시회 기간 중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는 비공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기차 구동 솔루션 및 공조 솔루션과 인포테인먼트 기기, 자율주행 장치 등을 선보인다. 전시주제는 '이노베이션 파트너'로, 자동차 산업 혁신 원동력을 글로벌 완성차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담았다.

김명근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